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8.06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독일 등 EU 국가들, 이스라엘에 대한 과학 분야 제재 추진에 신중한 입장 유지(7.31)
 - EU 회원국들은 가자지구 내 대규모 기아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일부 중단 방안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함
 - 특히 독일은 역사적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과학 분야 제재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. 익명의 독일 정치권 인사는 “독일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재를 지지할 수 없다”며, 가자지구 내 강제 이주 상황 지속 또는 인도적 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
 - 이스라엘 대학과 학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확대
- 유럽 주요 정책 전문가들, FP10에서 ERC의 독립성 유지 촉구(7.31)
 - 유럽의 주요 정책 전문가들은 차기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P10)에서 유럽연구이사회(ERC)의 거버넌스 개혁이 기관의 독립성과 과학위원회의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
 - 또한 FP10의 협력연구 부문(필라2)을 집행위 연구혁신총국(DG RTD)과 성장총국(DG Grow)이 공동 관리하도록 한 집행위 제안에 회의적 반응
 - 정책 전문가들은 FP10의 효과적 집행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이중 용도 프로젝트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
- EU, 호라이즌 유럽 기후·에너지·모빌리티 부문 2026-2027 워크프로그램 초안(8.4)
 - EU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의 기후·에너지·모빌리티 분야에서 2026년 17억 6천만 유로, 2027년 13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
- (기타) ▲가상세계 분야에서 EU의 전략적 역할: 혁신, 투자 및 글로벌 의존성 (7.30) ▲EU 연구 프로젝트 내 사회과학 연구자 통합 여전히 장벽 존재(8.5) ▲2024년 호라이즌 유럽 미션 공고에 30개 컨소시엄 선정(8.1)